

GIST 학사 신입생 230명→289명 입학

지난 3월 전년 대비 42명 증원된 학사과정 신입생 289명이 입학했다. 이에 따라 GIST 측은 교과 지원책 마련과 생활관 확충 등 학내 인프라 정비에 나서고 있다.

학사과정 신입생 꾸준히 증원

2026학년도 봄학기에 입학한 학사과정 신입생은 총 289명이다.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은 지난해 정원 내 200명 내외, 정원 외 30명 내외로 안내됐다. 수시모집 및 정시모집 결과, 정원 내 253명, 정원 외 36명으로 총 289명이 등록했다. 가을학기에는 외국인 학생 전형으로 7명 내외의 신입생이 입학했다.

이수정 입학학생처장은 훌륭한 학생이 많았던 만큼 많은 학생을 선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6학년도 수험생 자체가 많아 전반적인 입시에서 치열한 경쟁이 있었고, 그만큼 우수한 인재의 유입이 두드러져 기존 계획보다 선발 인원이 확대됐다.

이번 증원은 AI 단과대 신설 준비와도 맞물려 있다. GIST는 2025년에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30명 내외로 공지했으나, 이후 하반기에 2027년 AI 단과대 신설 사업이 논의되며 290명을 선발했다. GIST는 2학년부터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이기에 다가올 학사 개편이 선발 인원엔 반영된 셈이다.

GIST의 학사과정 모집인원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학부가 신설된 2010년 100명에서 시작해 2020년대 초에는 기초교육학부(현 도전탐색과정)를 200명 내외로 선발했다. 2024학년도에는 반도체공학과를 신설해 정원 외 모집인원 30명 내외가 증원됐다. 이후 2024학년도에 233명, 2025학년도에 247명이 입학했다.

2027학년도부터는 수시모집에서 정원 내 모집인원 100명이 증원돼 총 330명 내외로 선발 규모가 확대된다. 실제 선발 인원은 대학의 교육 여건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학사 운영, 교과별 지원책 마련

한편 신입생 증원에 따라 기초교육과목과 교양 과목 등 교과 운영 여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수강 인원 증가에 따른 원활한 교과 운영을 위해 교과목별 특성과 수

업 여건을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수·과학 연습반(Recitation) 및 토론식 수업에는 수강 인원을 고려해 추가적인 조교 배정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늘어난 수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 공용 강의실의 수용 현황을 점검하는 등 강의 여건도 함께 살피고 있다.

언어의 기초 과목인 영어 및 글쓰기 과목은 소규모 분반을 유지하며 운영할 계획이다. 글쓰기 과목은 '글쓰기의 기초' 세 과목과 '심화 글쓰기' 네 과목을 동일 과목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기존에는 '글쓰기의 기초' 과목을 수강한 후 '심화 글쓰기' 과목을 수강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7과목 중 한 과목만 수강할 수 있다. 영어 과목은 영어1과 영어2를 순서대로 이수하는 현행을 유지한다. 언어교육원은 증원에 따라 이번 가을학기에 영어 1 과목 1강을 추가 개설했다.

대학생활관 C동으로 정주 여건 안정화

학부생의 주거 공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학생팀은 현재 수용 현황을 분석하고 단기적 거주 공간 확보와 장기적 인프라 확충을 병행하고 있다.

즉각적인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해 기존 대학생활관 A·B동에 더해 기혼자 아파트 E동 내 호실을 리모델링한 대학생활관 C동이 운영을 시작했다. 기혼자아파트 E동은 본래 대학원생 및 연구원 기혼 세대를 대상으로 운영됐다. 올해부터는 E동 43개 호실이 학부생 거주 공간으로 운영된다. 현재는 비

교적 외부인 출입이 자유롭다는 특성을 고려해 3학기 이상 재학한 남학생으로 입주 대상을 제한한다.

대학생활관 C동 운영으로 최대 약 130명의 학부생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대학생활관(A·B·C동)은 정원 1,047명 중 851명이 입소해 81.3%의 입소율을 보인다.

2027학년도에도 신입생 입소 수요가 3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거 공간 확충이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해 학생팀은 단기 방안으로 원내 유휴 공간을 발굴해 주거 공간으로 활용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과기정통부와 및 기획예산처와 대학생활관 신축을 위한 정부 예산확보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예산확보 결과에 따라 신축 일정 및 규모를 투명하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학 공실, 식당 유치 노력 중

증원이 계속된다면 이전부터 문제가 된 제2학생회관(이하 2학) 식당 이용이 더욱 불편해진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2학에는 식당과 편의점이 운영 중이다. 2024년까지는 2층에 분식점 '락락'이 있었으나 제1학생회관(이하 1학) 2층으로 옮겨가며 같은 해 11월부터 현재까지 공실 상태다.

〈지스트신문〉에서 '점심시간 불편 관련 설문'을 진행한 결과, 점심시간 식사 해결 방식에 대해 한 응답자는 2학 줄이 너무 길어 수업 시간을 지키기 위해선 편의점을 주로 이용한다고 답했

다. 다른 응답자는 "1학 근처 식당은 가기가 어렵고 편의점도 사람이 붐비 그나마 시간을 맞출 수 있게 배달을 시키지만, 최소 주문 금액 등으로 인해 배달도 이용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며 어려움을 설명했다.

총무팀은 2학 2층 공실 상황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인지해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무팀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패스트푸드점 유치를 추진했으나 업체가 최저 매출 보장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중도에 포기해 유치가 무산됐다. 총무팀이 유치 과정에서 파격적인 임대조건을 제시했으나, GIST는 타 대학에 비해 학생 수가 적은 편이고 대학 상권 특성상 방학 기간에 수익 공백이 발생해 식당 유치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총무팀은 2학 2층 패스트푸드점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절차를 재추진했다. 총무팀은 올해 초부터 프랜차이즈 업체에 직접 연락하는 등 입점 업체 확보에 공을 들여왔다고 전했다. 앞선 두 차례 공고는 응찰 업체가 없어 무산됐으나 세 번째 공고에서 1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며 절차에 물꼬가 트였다. 지난 9월 2일에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열어 이 업체를 평가했다. 현재 업체와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종 사업자와 계약 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GIST는 학내 구성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서 간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약속했다. GIST는 "이번 변화를 교육 및 주거 인프라를 한 단계 더 혁신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변화의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더 나은 환경을 구축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전했다. 향후 증원이 이어질 예정인 만큼 일시적인 대응을 넘어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해 보인다.

대 학

과학을 더 가깝게, GIST의 교육봉사 프로그램

지난 7월 GIST와 호남지역 학생들 간 다양한 교류가 이뤄졌다. GIST 입학팀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Open GIST Science Lab’을 개최해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대외홍보팀은 사회공헌단 ‘피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과학캠프’를 통해 교육소의 지역 학생들에게 과학 체험을 진행했다.

호남지역 고등학생을 위한 전공 탐색의 장

지난 7월 21일 입학학생처의 주관으로 ‘Open GIST Science Lab’이 개최됐다. 이 프로그램은 호남지역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이공계 전공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진행된다. 올해는 33개 학교에서 60명이 선정돼 참여했다. 행사는 GIST 입학전형 소개로 시작됐고, AI정책전략대학원 공득조 교수가 AI 및 반도체 분야의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또한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 소개에 이어 재학생과 고등학생들이 GIST에서의 생활과 진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AI학과,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 물리·광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소

속의 GIST 재학생들이 특강과 실험 실습을 진행했다. AI학과는 AI Native 기반의 지능형 영상 시스템을 구현하는 실습을 진행했고, 전기전자컴퓨터공학과는 파이썬으로 직접 드론을 제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물리·광학과와의 경우 전자의 이중성과 파동의 성질에 대한 실험을 준비했으며, 화학과는 AI를 활용해 스마트폰으로 pH측정기를 제작하고, 음료 속 각성 물질을 분리·정제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생명과학과는 PCR과 전기영동 실험을 통해 유전자 증폭과 분석의 기본 원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입학팀 담당자는 “호남 지역 학생들에게는, 오늘 경험한 이 막대한 관심이 언젠가 구체적인 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이 멀지 않은 곳, 바로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밝히며 지역의 우수한 과학 기술 인재들이 GIST를 통해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과학의 접근성을 높인 ‘찾아가는 과학캠프’

7월 10일에는 GIST 재학생 사회공

헌단 ‘피움’ 소속 재학생 5명이 전남광주 해남군에 있는 산이중학교에서 ‘찾아가는 과학캠프’를 진행했다. ‘찾아가는 과학캠프’는 전남·전북 지역 읍면단위의 학교를 직접 찾아가 과학 체험, 진로 상담, 교원 강연 등을 진행하는 현장형 과학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산이중학교 전교생 43명을 대상으로 GIST 소개, 학부생 진로 멘토링, 교수 특강, 과학 키트 체험을 진행했다. 교수 특강은 인문사회과학부 하대정 교수가 ‘AI와 함께 잘 공부하기’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어진 과학 키트 체험에서는 ‘풍력 자동차 만들기’ 키트를 통해 학생들에게 친환경 에너지와 풍력 에너지, 지구온난화 등 관련된 과학 개념들을 설명하고 자동차를 만드는 체험을 진행했다. 이후 키트를 활용해 경주 대회를 개최했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설보민(도전, 26) 학생은 “친구들이 과학에 흥미를 느끼는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쉽고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앞으로도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활동에 계속 참여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대외홍보팀 담당

자는 과학이 어렵거나 멀게 느껴지는 분야가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즐기며 자신의 진로를 넓혀갈 수 있는 분야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GIST 학생들에게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지역사회에 나누는 과정에서 사회공헌의 의미를 직접 체감하고 함께 성장하는 경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GIST는 ‘Open GIST Science Lab’과 ‘찾아가는 과학캠프’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피움은 ‘주니어 과학 멘토링’, ‘GIST 과학 캠프·과학톡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에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다. 동아리 ‘온새미로’에서는 환경을 주제로 다양한 환경 봉사와 교육 봉사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있다. GIST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과학에 대한 접근성을 낮추고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 사회와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만들어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효림 기자
kimhyorim1031@gm.gist.ac.kr

교내 자작자동차 동아리 ‘G-BungE’, Baja 부문 최우수 기술 아이디어상 수상

GIST의 자작자동차 동아리 ‘G-BungE’(이하 지붕이)가 ‘2026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Baja 부문에 참가했다. G-BungE는 이 대회에서 실차로그 기반 E-BAJA의 BSK 트랙 최적화 주제로 최우수 기술 아이디어상을 받았다.

2026 대학생 자작자동차 대회와 G-BungE의 성적

KSAE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는 한국자동차공학회(KSAE)가 개최하는 대회로, Baja, Formula, EV, 자율 주행 등의 부문으로 진행된다. 이 중 오프로드를 주행하는 Baja 부문은 20주년을 맞았다. ‘2026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Baja 부문은 올해 7월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3일간 군산새만금자동차경주장에서 진행됐다. 대회에는 중국·인도 참가팀을 포함해, 총 25개 대학의 33개 팀이 참가했다.

대회는 7월 24일 기술 부문 심사와 7월 25일부터 26일까지의 경기로 구성됐다. 경기는 안전 검사, 힘지 주파 능력 평가, 90분 내구레이스 순서로 진행됐다. 경기 종합 성적으로 KSAE Grand Prix Baja의 최종 우승은 대림

대로, 산업통상부장관상을 받았다. 이후로 서영대학교가 금상, 전북대학교가 은상,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동상을 차지했다. 기술 부문 우수 디자인상은 중부대학교가 차지했다.

GIST 자작 자동차 동아리인 ‘G-BungE’는 가속 경기 4위, 동적 성능 공동 13위, 내구레이스 DNF를 기록해 최종 16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지붕이는 따로 진행된 기술 부문 평가에서 차량의 주행 데이터를 활용한 최적화 기술을 제시해 군산 시장상에 해당하는 최우수 기술 아이디어상을 받았다.

실차 로그 기반 최적화 기술

Baja 경기에서는 미끄러져 코너를 도는 드리프트성 주행이 자주 발생한다. 또한 완성된 차량이 실제 트랙에서 경쟁하기 전까지 객관적인 성능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때 지붕이는 최적의 랩타임과 주행 라인, 90분 내구레이스를 위한 효율적인 에너지 주행 전략 등을 도출하기 위해 ‘실차 로그 기반 E-BAJA의 BSK 트랙 주행 최적화’를 활용했다. 이 기술은 실제 차량에서 로그를 수집하고 2차원 모델을 구축한

후, 최적화 문제를 풀어 적정 기어비와 주행 전략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지붕이는 이 기술을 이용해 최적화된 결과를 얻었고, 이를 기반으로 여러 테스트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한 기어비를 대회 차량에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최적화 결과를 바탕으로 기어비를 변경한 뒤 가속 테스트에서 약 20%의 성능 향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차량의 잠재 성능과 에너지 소모를 대회 전에 미리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레이스 운영에 큰 이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향후 G-BungE의 목표

지붕이는 이번 경기에서 기대했던 차량의 성능에 비해 결과가 아쉽다고 말했다. 차량의 차체 완성도가 높아 주행 안정성 및 조종성에는 만족했지만, 변속기의 동력을 바퀴로 전달하는 등속조인트와 전자 제어 시스템이 불안해 정상적으로 주행하지 못했던 점을 아쉬운 점으로 뽑았다. 오프로드를 달리는 Baja 경기 특성상 심한 진동과 충격으로 인해 배선과 전장 부품에 무리가 가 잠재 성능을 100%까지 올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기 성적을 향상하

기 위해 등속 조인트와 전자 제어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전했다.

지붕이의 장기적 목표는 단순한 동아리를 넘어 GIST를 대표하는 학생 엔지니어링 팀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붕이의 구성원들은 수업에서 배운 공학적 지식을 활용해 실제 차량 설계, 제작, 시험 및 운영을 할 수 있는, 단순한 지식을 배우는 학생을 넘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엔지니어로 성장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덧붙였다.

지붕이 팀은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 차량이 실제로 주행하는 순간의 성취감은 자작자동차 동아리만의 매력이라고 언급했다. 덧붙여, “자동차를 좋아하거나 차량 설계와 제작뿐만 아니라 팀 운영, 데이터 분석, 후원 유치 등의 모터스포츠 팀의 전반적인 활동을 경험하고 싶다면 누구나 언제든지 지붕이의 문을 두드려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성준 기자
sjunlee7106@gm.gist.ac.kr

WFK IT 봉사단, 라오스 파견 성료

지난 7월 16일, GIST World Friends Korea IT 봉사단(이하 IT 봉사단)이 라오스에 파견됐다. 봉사 단원들은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해 총 93명의 현지 교육생들에게 IT 및 문화 교육을 진행했다.

GIST 학부생 16명, 라오스에서 IT 및 문화 교육 진행

GIST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와 함께 2014년부터 12차례 교육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라오스와 캄보디아에 총 5팀이 파견됐지만, 올해는 전쟁으로 인해 캄보디아가 파견 국가에서 제외됐다. 이번 IT 봉사단은 GIST 학부생 16명이 4개의 팀으로 나뉘어 라오스의 비엔티안과 방비엥에서 활동했다.

두 팀은 비엔티안 기술개발센터에서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3D 디자인 등의 교육을 진행했다. 다른 두 팀은 방비엥

소수민족학교에서 3D 프린터, 아두이노, 그래픽 디자인을 활용해 수업했다. 또한 4팀 모두 기초 한국어, 태권도, 전통놀이 등 다양한 한국 문화 수업도 진행하며 학생들과 교류했다.

교육 기자재 지원... 현지 교육 환경 개선

현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이어졌다. GIST는 노트북, 아두이노 키트, 3D 프린터 등 IT 교육 기자재를 기증했다. 지스트발전재단도 약 500만원 상당의 학용품을 기증하며 현지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힘을 보탰다. 지스트발전재단 최은모 이사장은 “배움을 향한 열정에는 국경이 없다”라며 “이번 지원이 현지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과 새로운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교육을 통한 국제사회 공헌을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현지 학생들과 함께 성장한 2주... 교육 협력 이어간다

봉사 단원들은 약 2주간 교육을 진행하면서 현지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고 서로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봉사단원 김연우 학생(물리, 25)은 “현지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지식을 전달하는 데에는 기술만큼이나 상대방의 눈높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배웠다. 평소 당연하게 사용하던 IT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라며 교육 소감을 밝혔다. 신다연 학생(화학, 23)은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어떤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오롯이 느껴졌다. 봉사활동은 가르치는 것보다 배우는 것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 말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2주였다”라고 말했다.

현지 학생들 역시 이번 교육을 통해 IT 기술을 직접 경험하며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전했다. 방비엥 소수

민족학교 뿔라 학생은 “IT 수업 덕분에 컴퓨터를 훨씬 더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됐다. 소통이 어려웠음에도 계속 노력해주셔서 감사했다”라고 말했다.

임기철 총장은 2023년부터 4년간 이어온 라오스 교육 협력을 통해 현지 학생들의 높은 학습 의지와 실무형 IT 교육에 대한 열정과 참여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실무 중심의 IT 교육을 확대하고, 현지 교육기관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국제 교육 협력 모델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약 2주간의 교육을 마친 봉사단은 지난 8월 5일 귀국하며 이번 파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지안 기자
jianlee06@gm.gist.ac.kr

월드컵 탈락 이후, 변화의 기로에 선 대한축구협회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은 비교적 유리한 조 편성과 대회 환경 속에서도 조별리그를 넘지 못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은 감독 선임 과정과 대한축구협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월드컵 탈락으로 다시 불거진 대한축구협회 논란

대한민국은 멕시코, 체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A조에 편성돼 조별리그를 진행했다. 손흥민과 이강인, 김민재 등 주요 선수들이 출전했으며 조 편성 역시 비교적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표팀은 체코와의 첫 경기에서 승리했지만, 멕시코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연이어 패배하며 1승 2패로 최종 탈락했다.

지난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 특정감사가 열렸다. 대한축구협회 규정상 국가대표팀 감독은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한다. 그러나 2024년 홍명보 전 국가대표 감독 선임 당시에는 추천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후보 면접과 추천 과정에 참여한 문제가 있었다. 또한 홍 전 감독의 내정 사실을 먼저 발표한 뒤, 이사회 서면결의를 거쳐 정식 선임한 절차도 문제로 지적됐다. 문체부는 감독 선임을 비롯한 협회 업무에서 총 27건의 위법 및 부당 업무처리를 확인하고 관련자 문책과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대한축구협회를 둘러싼 후속 논의

문체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 규정상 감독 선임 절차		2024년 홍명보 前 감독 선임 당시	
①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감독 후보자 추천	①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감독 후보자 논의
②	 대한축구협회 이사회 KFA 감독 선임	②	 기술 총괄이사 최종 후보자 3명 대면 면접 → 후보자 우선순위 결정·보고
		③	 홍명보 감독 내정 및 발표
		④	 대한축구협회 이사회 KFA 서면결의를 통한 선임
		※ 위 순서 변화는 문제 발생 지점 삽화 = 박호형 기자	

대한축구협회장을 비롯한 관련자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하는 등 후속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한축구협회는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기술총괄이사가 새로운 후보를 추천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추천된 후보와 면담 및 협상을 진행한 것이라며 문체부의 판단에 반박했다. 또한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협회는 그들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인해 후속 조치가 미뤄진 상황 속에서 현재까지 향소를 유지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지난 7월 30일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열었다. 정 전 회장과 홍 전 감독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월드컵 성적과 감독 선임 과정, 협회 운영 등에 대한 질의에 답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이 협회의 구조적 문제보다 경기에서 패한 이유를 추궁하거나 기존 현안 질의에서 다뤄진 내용을 반복하면서 청문회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감독 선임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6일 경찰은 2024년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에 협회 임원 등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와 축구회관 등을 압수수색 했다. 여기에 더해 과거 국제경기를 맡은 외국인 심판에 대한 부적절한 접대 의혹 등 과거 협회 운영과 관련된 문제도 다시 불거졌다. 이에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8월 8일 최근 이어진 논란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조직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높이기 위한 쇄신을 약속했다.

변화에 나선 한국 축구

월드컵 이후 한국 축구의 운영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도 시작됐다. 지난 7월에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지성 국제축구연맹(FIFA) 분과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K-축구 혁신위원

회(이하 혁신위)’가 출범했다. 혁신위에는 이영표, 박주호 등 축구계 인사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한국 축구 전반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혁신위는 기존 200여 명 수준이었던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인단을 약 2만 명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차기 회장 선거를 시행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제한된 인원이 회장을 선출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선거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대한축구협회도 차기 회장 선거와 함께 국가대표팀 임시 감독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 7월 30일 임시 감독 공개 선발 전형의 절차와 일정을 발표했으며, 8월 중 선임을 마칠 계획이다.

월드컵 이후 감독과 회장이 모두 물러나고 협회 운영 방식의 개선을 위한 움직임도 시작됐다. 그러나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경찰 수사와 과거 협회 운영을 둘러싼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다. 현재 추진 중인 제도 개선이 실제 협회 운영의 변화로 이어지는지가 주요 과제다.

김나원 기자
nawonkim07@gm.gist.ac.kr

기획

‘장윤기 사건’ 진실과 논란 사이에서

2026년 5월 5일 오전 0시 10분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길을 가던 여고생이 흉기로 살해됐다. 해당 사건은 단순 살인사건을 넘어 스토킹, 부당한 초동 대응과 증거인멸 의혹 등 전 국민적 분노와 충격을 유발하고 있다.

사건 발생 과정

지난 5월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보행로에서 오전 0시 10분경 피해자가 가해자 장윤기(23세)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당시 주변에 있던 고교생이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갔지만, 해당 고교생은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로 부상을 당했다. 사건 발생 직후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나, 장윤기는 본인의 SUV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장소 인근의 CCTV 및 차량 이동 경로 등을 추적해 피의자 신원 특정에 성공했다. 사건 발생 당일 오전 3시경, 경찰은 원룸 인근에 숨어있던 장윤기를 긴급 체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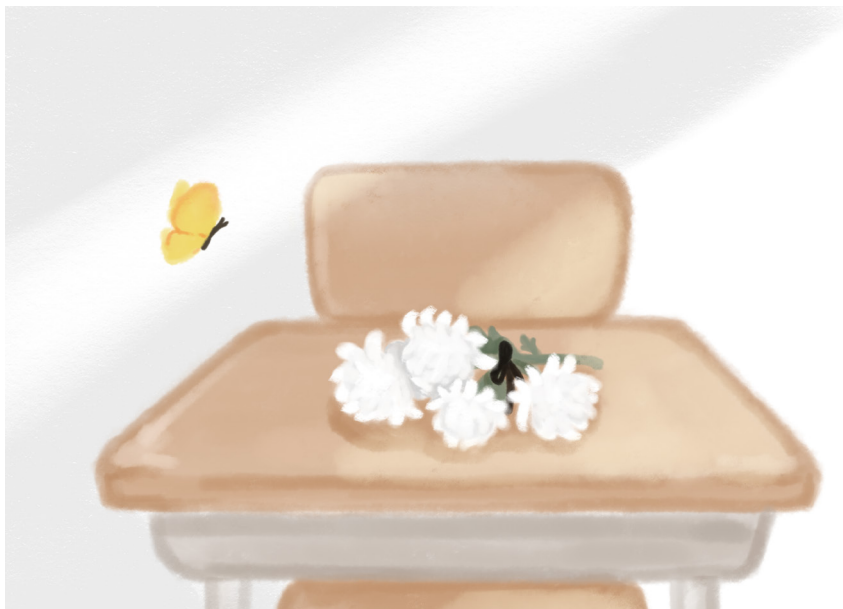
범행 동기 및 전말

장윤기의 초기 주장은 다음과 같다. 경찰 수사에서 그는 “사는 것이 재미가 없었다.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라고 진술하며 우발적 범행임을 강조했다. 경찰은 초동 조사 당시 피의자 진술에 의존해 범행 동기를 ‘평소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베트남 여성에게 구애했다가 거절당하자, 홑김에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판단해 일반 살인, 살인미수, 특수상해¹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의 보완수사² 과정에서 경찰 수사 결과와는 다른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다. 광주지방검찰청(이하 광주지검)은 보완수사와 디지털포렌식으로 범행의 본래 목적이 납치와 강간에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장윤기는 피해자를 뒤에서 제압한 뒤 차량 쪽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검찰은 장윤기가 이 사건 이전에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성을 상대로 스토킹과 감금, 강간상해³ 등을 저질렀던 사실을 밝혀내면서, 그 범행 수법이 이번 사건과 일치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검찰은 적용 혐의를 대폭 변경 및 추가해 장윤기를 구속기소했다.

사건 수사 과정 및 분석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장윤기의



삽화 = 김소현 기자

치밀한 계획성이었다. 그는 범행 전 흉기, 밧줄, 번호판 은닉 도구 등의 범행 도구를 구입해 차량에 준비했다. 또한 CCTV가 적고 인적이 드문 장소를 사전에 탐색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검찰의 디지털포렌식 결과, 장윤기의 스마트폰 및 컴퓨터에서 ‘범행 현장 CCTV 위치’, ‘성폭행 수법’, ‘납치 및 은닉 방법’ 등 다수의 범행 관련 용어 검색 내역이 확인됐다. 또한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감금 및 상해한 직후, 다음 대상을 모색해 이번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검찰은 치밀한 계획성 연속범죄로 판단했다. 경찰의 초동수사 단계에서는 단순 충돌 살인으로 결론 날 뻔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애초부터 성폭행과 납치를 목적으로 한 계획범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의 논란

그러나 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는 많은 논란이 불거졌다.

첫 번째로, 현직 경찰 친부의 증거인멸·유출 논란이다. 장윤기의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봐주기식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친부가 직접 행한 증거인멸 과정에는, 수사팀이 영장이나 엄격한 보관 절차 없이 장윤기의 SUV 차량을 친부에게 임의로 넘겨준 점, 친부가 차량을 인수받아 내부 소지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핵심 물증을 집으로 가져가 보관 및 은닉하게 만든 정황이 포함된다. 또한 수사팀으로부터 영장과 자취방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경찰의 압수수색 이전에 자취방에서 장윤기 개인 물품 및 흔적을 직접 정리, 파기하려 시도했다. 이 외에도 지인이나 동료 경찰에게 부탁하여 기밀 유출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

다. 영장 발부 상황, 수사 방향 등의 기밀 사항을 실시간으로 전달받은 한편, 수사 축소 정황도 드러났다. 초기에 “우발적 사건으로 다뤄달라”, “외국인 여성 사건과 분리해 달라” 등의 수사 청탁 행사가 있었고 여기에 가담한 수사팀장 등이 공무상 비밀누설 및 증거인멸 방조 혐의로 구속됐다. 특히 논란이 됐던 것은 현행법상 ‘친족 간의 특례’다. 실제로 현행 형법 제155조 제4항(친족 간의 특례)⁴상 친족의 증거인멸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인해 친부에게 증거인멸죄가 적용되지 않아 공분을 사고 있다.

두 번째로, 수사 축소 및 분리수사 지침 논란이다. 경찰이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했을 당시,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했다. 그러나 일선 수사팀 내부에서는 장윤기의 범행을 ‘강간등살인’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는 증언이 나오며 ‘죄명 축소 논란’이 불거졌다. 또한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의 지침 논란이 거론되는데, 국수본에서 이번 사건과 이틀 전 저지른 ‘외국인 아르바이트 여성 사건’을 “병합하지 말고 분리수사하라”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는 광산경찰서 관계자 및 형사과장의 법정, 경찰 조사 진술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성폭행 목적’이라는 강력범죄의 핵심 동기가 입증되지 못한 채 단순 살인으로 송치됐다는 일선 경찰관들의 증언이 확인됐다. 국수본 측은 의도적인 축소는 없었다고 반박하며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제도적 과제

이번 사건을 통해 현행 시스템 및 제도의 다양한 허점이 드러났고, 많은 제도적 과제를 남겼다.

첫 번째로, 현행 범죄 예방 시스템 부재 문제다. 현행 ‘스토킹범죄 처벌법’ 및

‘성폭력범죄 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고위험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격리하거나 실시간으로 추적 및 제지하기에 한계가 있음이 명확히 드러났다. 장윤기는 이번 여고생 대상 범행 전, 아르바이트 동료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선행 범죄를 저질렀다. 이번 사건은 현행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친인척 범죄 수사 시 발생하는 허점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현직 경찰관의 자녀가 강력범죄 피의자인 상황에서 해당 관할서나 지인 수사관들이 초동수사를 담당하면서 기밀 유출 및 물증 인계가 발생했다. 이는 수사 공정성 훼손 및 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 부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친족 간 특례에 따라, 현직 경찰 간부인 친부가 직접 증거를 파기, 은닉,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위한 행위라는 이유로 형법상 증거인멸죄 적용이 면제되는 법적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검경의 중복 압수수색, 국수본 지휘부의 수사 축소 및 분리수사 지침 논란 등은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의 지휘권에 대한 혼선을 보여줬다. 중대범죄 발생 시 실질적인 공조와 사법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재정비가 시급하다.

이번 사건은 더 이상 피해자의 꿈과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사회와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1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신체를 상해한 죄

2 경찰이 수사해 이월한 사건이 사실관계 불분명, 증거 부족일 때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하거나 경찰에게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

3 강간 등 성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하는 중범죄

4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

호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첫발... ‘남방한계선’ 극복 과제

호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이 시작됐다. 그중 고난도 공정을 이끌 수 준급 전문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대안으로 GIST 등 지역 거점 기관이 거론된다.

광주에 들어설 삼성·SK 메가 팹, 2030년 첫 칩 생산 예정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중 하나인 ‘호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되며 사업 추진을 시작했다. 광주 군 공항 부지 일대 약 250만 평(826만㎡)이 호남권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기반이 마련됐다. 지정된 부지뿐 아니라, 인근 광주 첨단 3지구 및 도심 융합 특구와 연계해 서남권 최대 규모의 첨단 산업 거점으로 조성된다.

이번 프로젝트의 전체 투자 및 사업 규모는 국내 주요 대기업과 연계해 수백조 원대에 달한다. 삼성전자의 경우 메모리 메인 팹(FAB) 2기와 국가 AI 컴퓨팅센터 조성 등에 약 4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연계 추진 중이다. SK하이닉스 역시 메모리 메인 팹 2기와 함께 1GW 규모의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현재 부지확보 및 인프라 조성을 거쳐 2030년 6월 최첨단 반도체 생산 시설 준공을 목표로 단계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클러스터 조성이 갖는 기술적 특징은 단순한 제조 공장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 비수도권 단지들이 주로 제품을 조립·포장하는 단순 후공정(패키징)에 집중됐던 것과 달리, 이번 프로젝트는 반도체 웨이퍼를 직접 가공하고 회로를 그리는 최첨단 전 공정 팹 구축을 핵심으로 삼는다. 이와 함께 차세대 산업의 핵심인 AI 반도체 개발 기반과 가상공간에서 공정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혁신 허브 등 첨단 기술 인프라가 함께 들어선다. 결과적으로 호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초미세 공정과 고난도 설계 기술을 갖춘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71만 고용 창출의 전망 속, ‘인프라·정치 갈등·인재 유출’ 난제

호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본격화하면서 지역 산업 생태계에 가져올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첨단 기술 산업의 ‘남방한계선’으로 불리던 경기 기흥·용인·평택 라인을 깨고 반도체 산업의 지도가 서남권으로 넓어지는 흐름이다. 청년 인구 유출로 고심하던 호남권 지자체들은 이번 클러스터가 단순 제조 인력을 넘어 고연봉의 엔지니어와 연구원이 정착하는 ‘기술 중심 도시’로 지역을 탈바꿈시키고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규모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도 크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약 71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와 1,627조 원의 생산 유발액이 전망되며, 기존 지역 산업 구조를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호남권이 가진 주요 경쟁력으로는 전력과 용수 공급의 잠재력이 꼽힌다. 최첨단 전공정 팹 1곳을 가동하는 데는 하루 평균 수십만 톤의 공업용수와 막대한 전력이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한다. 전력 측면에서 호남권은 전국 태양광 발전 설비의 약 40% 이상과 신안 해상풍력 단지 등 풍부한 재생에너지 발전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요구하는 ‘RE100(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달성에 유리한 입지다. 용수 측면에서도 총저수량 4억 5,700만 톤의 주암댐과 섬진강 수계 등 호남권의 풍부한 수자원 인프라를 바탕으로 반도체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가로막는 현실적인 우려와 난제도 함께 제기된다. 가장 먼저 정치적·행정적 이해관계의 충돌이다. 광주 군 공항의 임시 분산 배치를 둘러싼 제1전투비행단 기능 저하 우려,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 협의 등 복잡한 행정적 절차가 변수로 작용한다. 타 지자체들의 견제와 여야 정치권의 예산 확보 과정도 난제로 꼽힌다.

가장 큰 우려는 인재 유치와 정주 여건의 한계다. 경기 남부(수원·판교) 이남 지역으로의 근무를 기피하는 일명 ‘반도체 남방한계선’ 현상으로 인해 석박사급 고숙련 엔지니어와 연구진을

유치하기가 쉽지 않다. 교육·문화·의료 인프라가 수도권에 비해 열세인 상황에서 대기업 유치만으로 핵심 석박사급 인재들을 지역에 머물게 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수년간 국내 반도체 전문 인력 부족 규모가 8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초미세 공정과 AI 반도체 연구 인프라를 실제로 운용할 핵심 인력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 클러스터 정상 가동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전력망 넓히고 지역 간 협력해 한계 극복

앞서 지적된 인프라 구축의 불확실성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인력 확보의 한계라는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교육·연구 기관이 다각적인 해법 마련에 나섰다. 전력과 용수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송배전망 확충 문제는 국가 차원의 전력망 정비계획과 연계해 해결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체제 아래 두 지역 간 초광역 연대를 통해 정주 여건 조성 및 인프라 분담에 관한 행정적 갈등을 풀어가겠다는 구상이다. 행정·인프라적 해법과 더불어 인재 공급 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설비 및 공정 엔지니어 등 약 2만 3천 명 규모의 전문 인력 양성 계획이 수립된 가운데, 기술 난도가 높은 최첨단 전공정 팹과 AI 반도체 연구를 담당할 전문 인력 수급은 과제로 남아 있다. 단순 제조 인력을 넘어 고부가가치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에 투입될 석박사급 연구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인 GIST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GIST는 그간 쌓아온 산학 협력 인프라와 성과를 바탕으로 실무형 인재 양성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해 6월 글로벌 반도체 설계 자산(IP) 기업인 Arm과 협력하여 5년간 1,400명의 실무 인력을 키우는 ‘GIST-Arm 스쿨’을 출범시켰으며, 삼성전자와의 협력으로 채용 연계형 반도체공학과를 운영하며 대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경험을 축적해 왔다. 나아가 개별 대학의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교육 연대 모델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현재 교육계와 산업

계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서울대-전남대-GIST-대기업(삼성·SK) 연계 반도체 계약학과’ 설립안이 대표적이다. 지역 학생들이 광주에 머물면서도 우수 대학의 교수진 강의를 원격·방문으로 수강하고, 대기업 연구소와 GIST의 첨단 인프라를 교차 활용해 학위를 취득하는 방식이다. 이에 더해 GIST, 전남대, KENTECH 등의 핵심 교육 자원을 통합하는 가칭 ‘호남 반도체 연합공대’ 체제 구축으로 기초과학부터 현장 공정 기술, 반도체 전력 에너지를 아우르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AI와 반도체의 융합이 핵심 과제다. 광주 클러스터에 들어설 생산 시설은 SK하이닉스의 데이터센터와 삼성전자의 국가 AI 컴퓨팅센터가 결합한 지능형 반도체 특화 단지로 기획됐다. GIST는 AI 대학원 역량과 반도체 연구 인프라를 접목해 차세대 신경망처리장치(NPU) 및 지능형 메모리(PIM) 반도체 설계·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실의 성과를 대기업 팹으로 연결해 사업화하는 산학협력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임기철 총장은 “광주 반도체 팹은 한국과 세계 반도체 역사를 새로 쓸 기회”라고 강조했다. 호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성공적 안착은 인프라 조성과 함께 GIST 등 지역 거점 기관들의 인재·기술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는 것에 달렸다. 오는 2030년 광주 군 공항 부지에서 첫 번째 반도체 칩이 성공적으로 양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시현 기자
sihyun0924@gm.gist.ac.kr



제보 및 기고를 기다립니다

•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자유로운 주제의 기고문 환영합니다! • 궁금한 일이 있나요? 지스트신문에 취재 요청해주세요!

✉ editor@gist.ac.kr
☎ 010-2040-7157
📷 @gistnews_official

기획

“경계를 다루는 화학, 전기화학” 서다예 교수 부임

지난 3월 GIST 화학과에 전기화학 전공으로 서다예 교수(이하 서 교수)가 부임했다. 서 교수는 현재 GIST 첫 전기화학자다.

물질의 계면을 다루는 전기화학

서 교수는 전기화학을 “계면을 다루는 화학”이라고 소개했다. 하나의 상태 혹은 한 물질만을 다루는 게 아닌,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물질 사이를 다루는 화학이라는 뜻이다. 이 때문에 전기화학은 다양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데 사용된다. 서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전기화학의 가장 큰 틀은 화학 반응이 전기신호를 만들고 반대로 전기신호가 화학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며, 그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전기화학은 에너지 전환, 화합물 생성, 화학 반응을 통한 전기 에너지/신호 생성 등 다양한 반응에 쓰이고, 여러 재료를 이용해 반응시킬 수 있는 화학이다.

전기화학을 전공한 이유

서 교수는 “학부생 시절 가장 잘 모르겠지만 더 알아보고 싶은 분야가 전기화학이었다. 전기화학은 하나의 상태

가 아닌 경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는 화학이라는 점이 가장 매력있게 다가왔다”라고 말했다. 액체와 고체와 같은 상태 차이뿐만 아니라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생체와 인공체 사이도 계면이 될 수 있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전기화학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

서 교수는 처음부터 교수의 꿈을 가졌던 건 아니지만 전기화학이 실용적 활용 방법을 많이 가진 학문이기 때문에 교수가 됐다고 말했다. 전기화학은 포도당 센서나 에너지 생성과 같이 여러 분야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다고 느꼈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 전기화학에 매력을 느껴 상업적인 일을 하는 기업에 취직하기보다 연구를 계속하길 선택했다고 한다.

전기화학을 도구로 쓰다

서 교수는 이번 학기 새로 개설된 ‘전기화학:이해와 응용’ 과목을 맡았다. 해당 과목에서는 화학의 큰 기동인 열역학과 동역학을 배우고, 전기화학 중에서도 전압과 전류의 상관관계를 다룰 예정이다. 전기화학은 여러 분야 중에서도 특히 연구의 도구로 많이 사용

되기 때문에 연구원이 되고 싶은 학생들이 이 수업을 통해 연구에 자신감을 가지게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의 연구에서는 전기화학의 다양한 쓰임뿐만 아니라 그 본질이 강조된다. 서 교수는 전기분석을 전공해 분석 방법을 배웠고, 그 후 재료에 대한 특징과 새로운 재료 합성에 대해 배우며 분석해야 할 재료와 분석할 방법 양쪽에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연구도 비슷한 가닥을 잡아 만약 자신의 연구실에 들어온다면 근본적인 전기분석법과 분석할 재료도 배울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서 교수는 학생들에게 “좋아하는 일을 해라”라는 말을 남겼다. 좋아하는 일을 아는 게 중요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며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알아갔으면 좋겠다고 대학 생활을 자신을 알아가는 기회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자신은 학생들에게 학업적으로 성장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교수만이 줄 수 있는 도움이 있다며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학생들과 함께 연구

자로 성장하고 싶다는 기대를 남겼다.

덧붙여 전기화학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계면을 연결하는 전기화학에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근본적인 연구뿐 아니라 실용적으로 활용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든 전기화학에 관심을 가져 봤으면 한다는 말을 남겼다.



사진 제공 = 서다예 교수

정지원 기자
jeong_jiwon@gm.gist.ac.kr

2026년 폭염, 역대급 기록에 피해 속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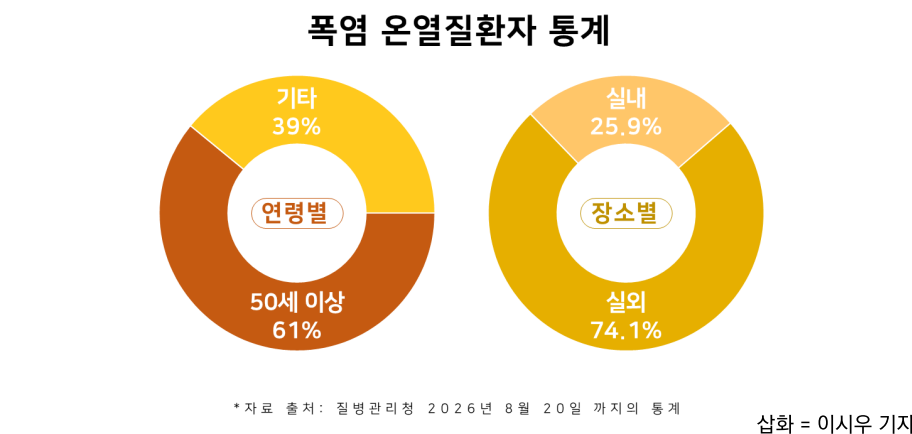
지난 7월 27일, 정부는 폭염 재난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이는 위기 징후가 극에 달해 국가 위기 발생이 확실시되는 단계다.

2026년 폭염, 그 기록

2026년 폭염은 6월 17일 대구, 경북 내륙 지역 등에 처음으로 주의보가 발령됐으며, 이후 8월 말까지 높은 강도로 유지됐다. GIST 환경에너지공학과 윤진호 교수(이하 윤 교수)는 올해 폭염에 대해 “최고 기온, 열대야 일수, 폭염 일수 등 다양한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8월 2일 경남 양산에서 역대 최고치인 42.5℃의 낮 기온이 관측됐다. 열대야 일수 역시 전국 평균 18.2일로, 평년(1991~2020년) 평균의 2.8배에 달하며 역대 2위를 기록했다. 폭염 일수의 경우 전국 평균 21.5일로 평년의 2배였으며, 역대 6위까지 다다랐다.

폭염 덮친 세계, 피해 현황

기상청에 의하면, 2026년 폭염으로 인해 한국에서는 8월 20일까지 총 3,507명의 온열질환자와 3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윤 교수는 폭염 사망자 통계에 대해 “정부가 매일 실시간으로 발표하는 사망 통계는 전국 응급실 의료진의 자발적인 신고만을 기반으로



삽화 = 이시우 기자

하고 있어, 통계에서 누락된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논했다. 또한, 가장 열악한 평별 환경에 노출돼 폭염에 가장 취약한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공식 사망 통계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한계가 있다고도 말했다.

농축산 피해 역시 막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 24일까지 총 122만 3,637마리의 가축 폐사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광주특별시)에서는 가축 38만 4,572마리가 폐사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고수온으로 인해 양식어류가 폐사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전국 피해 정도는 총 412만 4,572마리로, 광주특별시는 27개 어가에서 양식 어류 누적 45만 2,000마리가량 피해를 보았다.

2026년 폭염의 원인

윤 교수에 의하면 올해 한국 폭염의 배경은 고기압 강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유독 더운 여름에는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까지 진출한다. 올해는 이 고기압이 발달한 상태로 계속해서 머물렀다. 대기 상층에서는 고온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이 우리나라 상공과 그 남쪽 부근까지 확장됐다. 이러한 대규모 순환에 더해 다른 강화 요인도 나타났다. 고기압 상태에서는 비구름이 잘 발달하지 않아, 강한 햇빛이 지표면까지 도달했다. 또한 지형 효과로 인해 뽕 현상¹도 지역적으로 발생했다.

폭염 발생 시 위험과 대처법

폭염 발생 시 강력한 햇빛으로 인한

온열 질환 발생 위험에 주의해야 한다. 윤 교수는 폭염은 단순 급성 열사병뿐만 아니라 고온 스트레스로 심혈관, 호흡기, 신장 질환 및 당뇨병 등 만성 기저질환을 치명적인 수준으로 악화시킨다고 강조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기상청은 대응 요령을 통해 잦은 휴식과 수분·염분 섭취 등을 권하고 있다. 특히 실외에서 오래 활동하지 않고 자주 실내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관리청에서 조사한 결과², 올해 전체 온열질환자 중 74.1%인 2,627명이 실외에서 발병했다. 이 중 작업장이 전체 25.2%, 길가가 전체 12.4%를 기록했다.

온열 질환에 특히 취약한 노약자 보호 또한 중요하다. 올해 온열질환자 중 50세 이상의 노인은 2,162명으로 전체 중 61%를 차지했다. 기상청 역시 폭염 위험 수준별 대응 요령에서 독거노인의 상태 점검과 취약계층 지원을 강조했다.

2026년 폭염은 기록적인 강도로 인명 피해와 재산적 피해 양면에서 큰 상처를 남겼다. 앞으로도 폭염 재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다 체계적인 대비와 지원 마련이 필요하다.

장도윤 기자
doyoonj1109@gm.gist.ac.kr

¹ 습한 공기가 높은 산을 넘을 때 비를 뿌린 뒤, 반대편 사면으로 내려오면서 고온 건조해져 기온을 높이는 기상 현상
² 질병관리청 온열질환감시체계 5/15 ~ 8/20 보고 기준

GIST Enrolls 289 Undergraduate Freshmen, Exceeding Planned Intake of 230

Last March, 289 undergraduate freshmen enrolled at GIST, an increase of 42 students from the previous year. In response to the increase in enrollment, GIST is taking steps to improve campus infrastructure, including measures to support academic activities and expand student housing.

Steady Increase in Undergraduate Enrollment

A total of 289 undergraduate freshmen entered GIST in the spring semester of the 2026 academic year, up from 247 students the previous year. GIST had initially announced plans to admit approximately 200 students through regular admissions and around 30 through additional admissions. Following the early and regular admission processes, 253 students enrolled through regular admissions and 36 enrolled through additional admissions, bringing the total to 289 students. In the fall semester, approximately seven additional freshmen entered through the international student admission track.

Dean of Admissions and Student Affairs Lee Soo-jung explained that the large number of outstanding applicants made it possible to admit more students. The 2026 applicant pool was also particularly large, resulting in intense competition throughout the admissions process. As a result, the exceptionally strong pool of applicants enabled GIST to expand its intake of highly qualified students beyond the original plan.

The increase in enrollment is also connected to prepar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Colle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2025, GIST had announced that it planned to admit approximately 230 students for the 2026 academic year. However, discussions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the AI College in 2027 began during the latter half of the year, and the university subsequently expanded its intake to about 290 students. Since GIST allows students to choose their major beginning in their second year, the upcoming academic restructuring appears to have been reflected in the increased admission numbers.

The number of undergraduate students admitted to GIST has steadily increased over the years, growing from 100 at the founding of the undergraduate program in 2010 to approximately 200 admitted to the Division of Liberal Arts and Sciences, now known as the Challenge and Exploration Program, in the early 2020s. In 2024, the Department of Semiconductor Engineering was established, adding approximately 30 students through additional admissions, and enrollment rose further to 233 in 2024 and 247 in 2025.

Beginning in the 2027 academic year, the number of places offered through early admissions within the university's standard quota will increase by 100, bringing the total planned enrollment to approximately 330 students. The actual number of students admitted will be determined based on the university's educational capacity.

Academic Support Measures in Response to Increased Enrollment

Meanwhile, concerns have also been raised about teaching conditions for foundational and general education courses as the number of freshmen increases.

To ensure smooth course operation despite the increase in enrollment, additional support is being provided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courses and their teaching conditions.

For mathematics and science recitation sections and discussion-based courses, additional teaching assistants are being assigned according to enrollment. The university is also reviewing the capacity of general-purpose classrooms to accommodate increased demand for courses.

English and writing courses, which form the foundation of language education, will continue to be offered in small sections. The three offerings of Fundamentals of Writing and the four offerings of Advanced Writing will now be treated as equivalent. Previously, students could take Fundamentals of Writing followed by Advanced Writing, but beginning this year, students may take only one of the seven offerings. The existing

system for English courses, in which English 1 must be completed before English 2, will remain unchanged. In response to the increased enrollment, the Language Education Center also opened an additional section of English 1 during the fall semester.

Student Residence Hall C Opens to Improve Housing Conditions

As demand for student housing has increased, the Student Services Team has been analyzing current occupancy and pursuing both short-term housing solutions and long-term expansion of residential facilities.

As an immediate measure, Residence Hall C has begun operating after rooms in Building E of the Married Students' Apartments were remodeled for undergraduate housing, in addition to the existing Residence Halls A and B. Building E was originally intended for married graduate students and researchers. Beginning this year, 43 rooms in Building E are being used as undergraduate housing. Because the building is relatively accessible to outsiders, eligibility is currently limited to male students who have completed at least three semesters.

The operation of Residence Hall C allows the university to accommodate approximately 130 additional undergraduate students. Currently, Residence Halls A, B, and C have a combined capacity of 1,047 places, of which 851 are currently occupied, resulting in an occupancy rate of 81.3%.

With more than 300 new students expected to seek housing in the 2027 academic year, further expansion of student housing will likely remain necessary. The Student Services Team stated that, as a short-term measure, it is exploring whether unused spaces on campus can be converted into residential facilities. In the long term, the university is consulting with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the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 regarding securing government funding for the construction of a new residence hall. The university said it would transparently announce the construction schedule and scale once funding has been secured.

Efforts Underway to Bring in a Fast-Food Outlet to Vacant Space in 2-hak

Continued enrollment growth could further worsen difficulties in using the cafeteria at Student Union Building 2 (hereafter "2-hak"), an issue that has already been raised by students.

2-hak currently houses a cafeteria and a convenience store. Until 2024, a snack restaurant called "Rakrak" operated on the second floor, but it moved to the second floor of Student Union Building 1 ("1-hak") that year. The space has remained vacant since November 2024.

In a survey conducted by the GIST News on difficulties students experience during lunchtime, one respondent said that the line at 2-hak was so long that they usually relied on the convenience store because it let them make it to their classes on time.

Another respondent described the situation as follows: "The restaurants near 1-hak are difficult to get to, and the convenience store is also crowded. I sometimes order delivery just so I can make it on time, but minimum-order requirements often make even that impossible."

The General Affairs Team identified the vacant second-floor space in 2-hak as the most urgent issue and is focusing on resolving it. Last year, the team attempted to attract a fast-food restaurant based on the results of a student survey. However, the effort ultimately failed after the company withdrew, citing the inability to guarantee minimum sales.

Although the General Affairs Team offered exceptionally favorable rental terms during the process, GIST explained that securing a restaurant tenant is difficult in practice because the university has a relatively small student population compared with other universities and campus businesses face a significant loss of revenue during academic breaks.

<The whole article in the website>

Reporter Park Hyunseo
hspark5091@gm.gist.ac.kr
Translated by Dayeon Lee

기획

GIST 노조 무단협, 체결 결렬부터 논쟁의 쟁점까지

지난 2024년부터 GIST 노동 조합(이하 노조)과 GIST(이하 기관) 간의 단체 협약(이하 단협) 체결이 이뤄지지 않아 무단협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양측은 지속적으로 단협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결렬되고 있다. 현재 원내에는 단협 체결을 요구하는 플랜카드까지 걸려있다.

기관과 노조의 단협 체결 결렬

노조와 기관이 협의 중인 단협의 사전적 의미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사이에 체결하는 자치적인 법규'다. 단협은 최소 임금, 연차 및 반차 등의 휴식 규정 등을 조율하고, 노동자가 기관에 요구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노조와 기관 간의 단협이 없다면 노동자들은 노동법에 의해 지켜지는 최소한의 권한만 보장되므로 노조에게 단협은 필수적이다. 반면 단협으로 기관장의 경영권이나 인사권에

심각한 제약이 생길 수 있어 기관은 체결에 신중해야 한다.

2024년부터 GIST의 노조와 기관은 단협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GIST는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지스트지부 ▲민주노총 공공연구노동조합 GIST지부 ▲지스트 연구원 유니온 총 3개의 노조가 단합해 타 과기관과 비슷한 수준의 단협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기관은 기관의 실정 및 운영의 현실성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는 조항이 많아 이를 조항별로 단협을 체결하자는 입장이다.

단협을 체결하기 위해서 기관과 노조는 지난 2년간 협상을 16번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자 노조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 후 쟁의권 확보, 교내 플랜카드 게시 및 시위 등을 시도했다. 양측 모두 빠른 단협 체결을 원하지만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타 기관 수준의 단협 vs 무리한 권한 요구

노조가 단협에서 가장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점은 타 과기관과 같은 수준의 단협 체결이다. 노조는 KAIST와 UNIST 등 타 과기관의 노조 단협안에 있는 조항을 기본으로 157개 조항을 기관에 요구했다. 이 중 현재 기관 측과 합의된 조항은 71개다.

하지만 기관은 타 과기관과 같은 내용이 아니라 수정된 버전을 요구하고 있다며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관은 타 과기관에 있는 조항이라도 실질적으로는 효력이 없는 조항이 많고, 과거에 만들어진 조항을 최신 기준에 맞춰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조항은 공정성과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관은 노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 중 경영·인사권 요구를 문제 삼았다. 기관은 ▲인사위원회 위원 10명 중 1명을 노조 인원으로 구성시키는 조항

▲노조 간부를 인사 발령할 때 노조의 동의를 받는 조항 등이 기관장이 경영 이념을 가지고 기관을 운영함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해당 조항 역시 타 과기관에서 인사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미 시행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조 활동에 대한 불이익 등 여러 주제에 관해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한편 교내에 걸린 다수의 단협 관련 플랜카드에 관해 혼란을 겪고 있는 학생도 많다. GIST 학부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학교 분위기에 좋지 못한 것 같다. 관련 플랜카드를 볼 때마다 불안감과 걱정이 든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지스트신문
editor@gist.ac.kr



지스트신문

3기 독자자문위원회 모집

01 모집 부문

독자자문위원회 0명
(GIST 구성원 누구나 지원 가능)

02 지원 기간

09월 18일 (금) ~ 10월 31일 (토)

03 지원 방법

지스트신문 홈페이지
(gistnews.co.kr) 왼쪽 상단
공지사항 또는 qr코드에서
지원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editor@gist.ac.kr 로 제출

04 활동 기간

2027년도 (추후 안내 예정)

05 합격자 발표

11월 20일 (금)

문의: 010-2040-7157



자세한 사항은 지스트신문 홈페이지와 공지사항 참조

만평



삽화 = 서연경 기자

GIST

지스트신문

2016년 4월 11일 창간

발행인 임기철

주 간 홍성민 편집장 이다연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23 제1학생회관 3층 GIST신문사

전화 062-715-5810

이메일 editor@gist.ac.kr

웹사이트 gistnews.co.kr

인스타그램 @gistnews_official



지스트신문 뉴스레터

한눈에 볼 수 있는 지스트신문 요약

뉴스레터 구독 바로가기

